

이코노&비즈 피플

제습기 돌풍 타고 생활가전 회사 거듭난다

자체 브랜드 '디에테' 개발 광주 디케이산업

신상품 DDH-144시리즈 등 5만대 생산 목표

이달부터 지역민 위한 특판행사도 준비

공기정화기도 개발 완료... 연말 시장 나올 듯



2014년형 제습기 DDH-144

광주지역 금형기업인 디케이산업(대표 김보근)이 생활가전 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2년 지역기업 최초로 자체 브랜드 '디에테(d·ete)'를 론칭, 출시한 제습기는 3년차를 맞아 판매목표가 2만대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시장에서 인정받은 품질과 기술력 덕분에 대기업에서도 주문이 밀려와 올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2만대의 납품계약을 맺는데도 성공했다. 디케이산업은 '디에테' 브랜드로 인지도를 알리던 환경과학기술을 접목, 중장기적으로는 생활가전전문업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케이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지열한 제습기 시장의 경쟁 속에서 신제품 출시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1일 서울에서 열린 '2014 한국 PB·OEM 중소기업상품전'에서 올해 신상품 DDH-144시리즈를 선보인 디케이산업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며 한층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새로 공개된 신제품은 소비자의 용도에 맞도록 가정용(6ℓ·7ℓ·12ℓ·14ℓ)과 업소용(26ℓ·27ℓ)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했으며 전남대와의 산학공동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한층 특화시킨 모델이다. 에너지효율 1등급은 물론, 향상된 제습력과 음이온 발생, 풍량 조절, 소음 저감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자동 제습기능으로 40~60%의 건강습도를 유지해주는 이 제품은 최근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유통망을 잇따라 개척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기업 제품보다 30% 가량 저렴하면서 중소기업답지 않게 전국 어디서든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디케이산업은 1993년 평동산업단지에서 설립, 금형과 부품 가공, 콘덴서 등을 제조하는 건설한 기업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1차 부품협력업체인 디케이산업은 금형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에 들어

가는 가전외장부품을 주로 생산해 왔다.

지난 2012년에는 지역 기업들의 도전이 쉽지 않았던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제습기 시장에 뛰어들며 완성품 가전제품시장에 명함을 내밀었다.

제습기 출시 2년 만에 2013년 우수디자인(GD)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 수상실적을 바탕으로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습기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김승호 디케이산업 전무이사는 "제습기 출시 초기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지역 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꾸준히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탄탄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제품을 받으려는 유통업체는 물론, 대기업에서 먼저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디케이산업은 올해 제습기 생산라인을 지난해보다 10배 가량 증설, 하

루 300대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비데 전문기업인 대림통상과 보일러 등을 만드는 롯데기공은 제습기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으로 디케이산업의 제습기를 선택, 생산물량 증가도 이뤄졌다.

'디에테'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지역기업의 제품을 지역 일등으로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잠마 전까지 지역민을 위한 특판행사도 기획중이다. 광주 지역의 대기업 사업장과 아파트 홍보 등을 통해 공장도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직배송할 예정이다. 디케이산업은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원가에 맞는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습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시장을 주목하게 할 신제품도 이미 개발을 마치고 양산준비에 나섰다. '환기형 공기정화기'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공기정화기 시장에서 대부분의 제품들은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을 채용했지만 디케이산업의 청정기는 외부의 공기를 끌어오는 기술을 채용했다. 이미 관련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공인시험기관 인증까지 거쳤다.

김보근 대표는 "당장 제습기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습기로 쌓은 기술력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접목시켜 중장기적으로 환경과학생활가전 업체로 입지를 굳혀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판행사의 문의(062-600-1710).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디케이산업은 올해 독자 브랜드인 '디에테' 제습기의 생산라인을 지난해보다 10배 가량 증설하고, 5만대의 생산 목표를 세웠다. 공장 내부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버랜드 내년 1분기 상장 삼성그룹 3세 승계 가속화

이건희 회장 외병 중 결정
지주회사체제 전환 급물살

삼성그룹이 삼성SDS에 이어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를 내년 1분기에 상장하기로 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작업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20여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주목된다. 삼성에버랜드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달 중 주권회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공모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상장을 통해 지난해 재편된 사업부문들의 사업경쟁력을 조기 확보해 글로벌 패션·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 승계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 상장을 통해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이 부회장 등은 거액의 상장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차익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분 매입과 상속세 지원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

→삼성물산으로 이뤄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46)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1%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두 딸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41) 제일기획 사장도 에버랜드 지분을 8.37%씩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연내 상장을 앞둔 삼성SDS 지분도 나눠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이 11.3%, 나머지 두 명은 3.9%씩이다. 재계에서는 상장으로 양사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 자녀의 보유 지분 평가액도 크게 늘어날 것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와 삼성SDS를 삼성전자 등과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3세대 간의 영역을 구분 짓는 승계 구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수년 전부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전자·금융을 비롯한 핵심 계열사들을, 이부진 사장은 유통·레저·서비스 계열사를, 이서현 사장은 패션·미디어 계열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는 적정 시점에 이들 삼 남매가 각자가 맡은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계열분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연합뉴스

10대 재벌 매출액 전체 상장사 절반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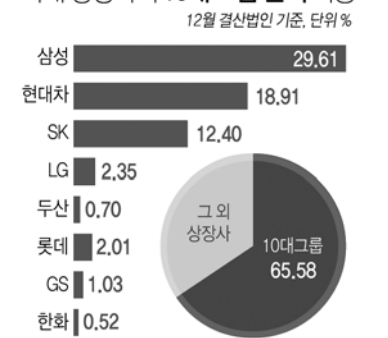
순익비중 삼성·현대차가 50%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매출액이 국내 모든 상장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66% 수준에 달하고 이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개별·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분석 가능한 1천539개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11조475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벌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그룹 상장사 80곳의 매출액이 159조203억원으로 전체의 51.05%를 차지했다.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에는 국내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 모든 기업이 창출하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10대 그룹이 맡고 있다는 이야기다.

삼성그룹 매출액이 52조429억원으로 전체의 16.70%에 달했고 현대차그룹은 34조1472억원으로 10.9%였다. 뒤이어 LG그룹(24조6339억원) 7.91%, SK그룹(16조9471억원) 5.44%, 롯데그룹(9263억원) 2.90%, 현대중공업(7조2844억원) 2.34% 순

국내 상장사의 10대 그룹 순익 비중



자료/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연합뉴스

이었다. 또 한진그룹(5조3787억원) 1.73%, GS그룹(3조894억원) 1.22%, 두산그룹(3조5777억원) 1.15%, 한화그룹(2조2114억원) 0.71% 등이다.

10대 그룹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2조4814억원과 11조1633억원으로 전체 상장사의 66.29%, 65.58%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삼성그룹 순이익이 5조409억원으로 전체의 29.61%, 현대차그룹은 3조2196억원으로 18.91%를 각각 차지했다. 두 그룹의 비중이 48.53%에 달해 놀라운 현상은 여전했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두암신협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 (미취학) ...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환타, 쥬스)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드림이음 최상급 살도시

· 풍부한 육즙

· 부드럽고 이삭이 연한 맛

· 순살계곡기스와 리얼 허브 숙성

· 치킨양념 부무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 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랑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